

이슬성신절에 붙여

만법전 대명하강편

## “임인(壬寅)세월 당도하소!”

임인년(壬寅年)이 밝아왔다. 임인년을 주역에서 불 때에 태화혁명(澤火革卦)로 본다. 과상(卦象)은 연못 아래에 불이 있는 모습인데, 물은 아래로 내려와 불을 끄고 불은 위로 타올라 물을 말려버리는 상극 관계로서 모순이 심화(深化)되어 현 상태가 유지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을 상징한다.

###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바로 큰 잘못이다

그렇다면 변화의 시기에 각자는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성찰(省察)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자기성찰이 없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가 없고 그 잘못을 고쳐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성찰이 없다면 신앙 내지 수도하는 자가 아닌 것이다. 잘못은 나라는 자리에 나라는 의식으로 행세하는 마귀의 소행이다.

따라서 자기 성찰이 있고 나서야 자기 혁신이 가능하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잘못이라는 고전의 말씀은 굳이 들추어내지 않더라도 지금 때는 변화의 시기가 일일신우일신(日日新 又日新)의 자세로 구도(求道)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하리라.

조금만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때는 천지개벽의 와중에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의 극을 향해 가는 형국에 전 세계에는 한류 불이 일어나 오히려 한국은 국격(國格)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그저 우연한 일로 치부할 것인가? 여기에는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의 천지공사로 인한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모든 상황이 급변되고 있지 않는가?

### 견디가소 견디가소 임인세월당도하소



용광로(火火; 리離괘) 속에서 달구어지고 물(택澤; 태兌괘)로 담금질하여 만들어진 천하무적 금은 천사의 성도들이 임인년에 공을심승 정도령의 진리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를 증거하고 세상에 내세운다

『만법전』(대명하강)편에 “견디가소 견디가소 임인세월당도하소...중략... 임인 계묘갑진을사 일시구왔구나 일시구왔구나 원신발원 갑진을사일시구나.”라는 구절을 볼 때 지난 신축년으로 중요한 시간의 마디가 끝나고 임인년부터 새로운 시간의 마디로 들어갈 수 있다.

더군다나 계묘에는 수도삼수(水數三數 利在田田)가 걸려 있고 갑진을사(甲辰乙巳)에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이라. 정도령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큰 천지공사(남북상화태평가옥등추야삼팔일南北相和太平歌玉燈秋夜三八日)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다음 오미낙당당(未樂堂堂)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격암유록』(궁을론)에서 웃놀이(웃놀이)에 빗대어 말한 단동치기 오묘일길(棟東致基 五卯一乙)이 그것이다. 을묘(乙卯) 정묘(丁卯) 기묘(己卯) 신묘(辛卯) 계묘(癸卯)로 오묘(五卯)가 되고 마지막에 걸(乙)이면 웃말 낙동이 단동으로 뭉쳐서 한 번에 웃판이 끝나듯 계묘에서 갑진을사병으로 판이 끝나는 것이다.

### 감로해인으로 괴질신장을 물리치고 천지대환문 통과

『격암유록』(말중운)에 “청룡지세이제 궁궁(靑龍之勢利在弓弓) 백마지월이제을(白馬之月利在乙乙) 흑호중하도립(黑虎誼河圖立)이면 청룡제화원년(靑龍濟和元年)이라.” - “임인년에 공을심승 정도령의 진리를 증거하고 세상에 내세우면 갑진년 경오월에 정도령의 큰 천지공사가 있으리니 온 세상을 구제하고 만민이 화합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 된다. 이같이 정도령의 천지공사 스계줄은 호리불차(毫釐不差)로 이루어져 나간다.

수운 선생은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고 하였고 강중산 선생은 “무기(戊己)는 천지대환문(天地大開門)이라. 괴질신장 십만을 물어 두었노라.”라고 하였는가 하면 “괴질 병겁의 때가 되면 흥수 넘치듯 할 것이니 누운 자는 일어날 거름이 없고 밤 먹던 자는 국 떠먹을 틈도 없으리라.” 또 “가다가 죽고 오다가 죽고 먹다가 죽고 웃다가 죽는다.”라고 했지

만 아직은 이런 상황이 아니며 비록 그런 때가 오더라도 정도령의 감로해인(이슬성신)으로 괴질신장을 물리치고 천지의 대환문(大開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만법전』에서 말하듯 쇠파리 같은 우리 인생들은 천리마(千里馬=정도령)에 죽자 살자 달려붙어 있어야 괴질신장(怪疾神將) 십만(十萬)이 숨어있는 천지대환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때 천리마 정도령의 감로해인으로 세계만민을 구제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음을 내어 주리라(이사야 26:19)”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슬성신은 마귀를 죽여 죽음을 없애는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과일인 것이다. 그래서 정도령(미륵불)을 꼭 만나야 한다고 유불선 경전과 여러 예언서에서 누누이 말했던 것이다. 천지대환문을 통과하면 금 돼지가 꼬리를 치며 반겨 맞으리라. 삼십육각풍류성(三十六角風流聲)이 들리며 광명세계 신선세계(중천세계)가 열리는데 다만 구경꾼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로다.

메시아절(12월 25일)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또한 임인년 1월 1일 이슬성신절을 맞아 메시아(구세주) 정도령이 인류가 겪는 죽음을 없애려고 감로해인을 가지고 이십세기 후반에 한국에 오신 의미를 깊이 새기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시려는 구세주의 염원을 좇아 다 함께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 불사영생의 진리를 전해야 할 것이다. 임인년 벽두(벽頭)에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 정도령을 꼭 만나 이슬성신 감로해인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필자는 유튜브 '진지아름 tv'에서 격암유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22>  
“이제는 스스로 생명과를 따먹어라”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인간 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다. 찬송을 불러도 희미하게 불러서는 백날 불러도 은혜를 못받는다. 그 마음이 의심을 하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어릴 때는 그냥 먹여주었지만 그만큼 알려주었으니 이제는 스스로 생명과를 따먹을 때가 되었다. 유사 이래 깊이깊이 묻혀 있는 하늘의 비밀과 마귀의 비

밀을 드러낸 자가 있느냐?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고 학문이 없었고 진리가 없었다. 여기서 비로소 참 진리를 알려주고 이해와 총명의 신을 부여주며 생명과를 먹여주고 있다. 아무리 부여주어도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다.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다.\*

## 이슬성신절의 유래

‘이슬성신절’은 승리제단 5대 경축일 중 새해 첫날 열리는 첫번째 절기다. 이슬과 성신으로 이루어진 이 절기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나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며 이름이 붙었다 공금증을 유발하게 한다. 성신(聖神)이면 성신, 성령이면 성령이지 그 앞에 ‘이슬’을 왜 붙였을까?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성신 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알지못한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슬(露)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성신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 이슬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성신

성경도 성신이 이슬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슬 성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다. 즉 ‘월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벽두(벽頭)에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 정도령을 꼭 만나 이슬성신 감로해인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다는 것이다. 다음은 당시 박태선 장로님의 가장 신앙촌에서 재무담당을 했던 윤봉수 승리제단 신도회장의 증언이다. “어느 날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영모님(박태선 장로)이 회의에 나오시더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자릴 수 없고, 이슬성신절로 지내야 되는데 날짜를 25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날로 할지 의논해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의논을 하였는데 당시 청년연합회장 모씨가 제안한 1월 1일 안(案)이 채택되었고, 그에 따라 이듬해인 1981년 1월 1일에 첫 이슬성신절 경축예배를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1회 이슬성신절은 1981년 전도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 이후 1981. 8월 설립된 승리제단에서는 1982년 제2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해 첫날을 이슬성신절로 지켜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음미해야 할 것은 이슬성신 은혜를 처음 받고, 이슬 은혜로 수많은 기사이적을 행하며 하늘의 역사를 해온 박 장로님이 수십 년간의 전도

## 신간 도서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사기다!”라고 주장한다. 누구를 믿고 죽으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나와서 하늘 꼭대기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치고 있고 천국 보내준다는 구설로 현금을 받고 있으나, 똑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단체는 사기 집단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완성자가 출현하게 되면, “이 세상에 종교도 없다! 이 세상에 학문도 없다!”라고 외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완성자란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으로 완성된 분이다. 완성자는 몸을 가진 체로 하나님이 되었고 몸을 가진 체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기에, 반드시 영육일체설에 입각한 진리를 논하게 되어 있다. 이리하여 완성자에 의해서 <사람 몸이 죽지 않는 학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신간 도서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에서는 조희성님이 태어나서 완성자

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히 다루었으며 또한 완성자가 된 이후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인류를 위해 어떤 공로를 쌓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그대로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를 읽지 않는 자는 성경을 논할 자격이 없고 불경을 논할 자격이 없게 되었다. 또 이 책을 읽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부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난센스다.

장세 이래 인류와 삼라만상의 우주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창조력을 가진 전지전능자가



20세기 후반에 출현했다.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 큰 행운이요 축복이다.\*



### 박태선 장로님 제정인 이슬성신절 승리제단에서 제2회부터 지켜와 이슬성신의 주인공 출현으로 당연한 것

관 역사를 하면서 ‘이슬성신’을 경축하는

관 역사를 하면서 ‘이슬성신’을 경축하는

절기를 전혀 만들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1981년 새해 첫날을 왜 ‘이슬성신절’로 제정한 것이었느냐 하는 점이다. 그것은 첫째, 박 장로님은 ‘이슬성신’의 주인공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박 장로님 시절의 이슬성신은 미완성의 은혜이므로 영생의 시대를 열 수 없었다. 둘째, 삼위일체로 완성된 이진자가 출현하여야 이슬성신이 완성되어 불로불사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주인공인 조희성님이 승리제단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승리제단에서 이슬성신절을 경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조희성님은 박 장로님이 부여주는 ‘이슬성신’으로 자신 속의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여 죽이고 1980. 10. 15. 구세주가 되었으므로 그 다음해인 1981. 1. 1을 ‘이슬성신절’로 제정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슬성신은 각 경전에 기록된 주인공의 증표이자 권능과 조화의 실체임에도 예수라는 가짜 구세주에 사로잡혀 진실을 외면하는 기독교인들, 감로는 불사영생의 은혜임을 전혀 모르고 있고,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는 불교에 기념했던 성탄절까지 없애버렸다. 예수가 구세주가 아닌 마귀새끼이므로 전도관에서는 성탄절을 경축할 수가 없고 권하고 싶다.\*